

# 광주시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제기

6월 지방선거를 5개월 여 앞두고 광주지역에서 특정당 소속 당원 명부가 대량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출마 예정자 진영에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고, 실명이 노출된 일부 당원들은 소속 정당에 경위 파악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우에 따라 정당 또는 시법기관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일부 당원들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시장 출마예정자인 A씨 명의로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됐다.

이 글에서 A씨는 신년 인사와 더불어 새 정부 들어 자신이 일궈온 업무적 성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신년 영상메시지도 첨부했다. 문자메시지는 지난해 12월28일에 이어 두 번째 전달됐다.

문제는 신년에 전송된 두번째 문자메시지에 수신자 실명이 적시됐는데, A후보와는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상당수가 대신 이후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입당한 당원들이라는 점에서 누군가 당원 명부를 외부에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당원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데,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 주변 당원들에게 물어보니 공교롭게도 해당 문자를 받은 이들 중 상당수가 신규 입당 당원이라는 점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광주시당 당내 경선을 준비중인 한 입지자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누구는 출발선에 서고, 누구는 50m지점에서 출발한다면 누가 이기겠느냐"며 "여러 정황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당 소속으로 세무 당원 명부를 죄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는 시당 조직국장과 8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 모두 9명이다. 이 중 시당 조직국장은 공교롭게도 A씨 추천으로 시당에 당직자로 활동했고 최근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직을 그만둔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초 당직자로 임명된 지 불과 3개월만에 그것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관리 실무 총책임자가 그만뒀다는 점에서 '명부 유출 의혹과 연관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일고 있다.

당원 명부는 철저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중앙당에서 시당 소속 극소수 당직자들에게만 전달된다.

지난해 11월, 8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해당 지역 당원 명부,

##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명의 문자 무더기 발송 일면식도 없는데 수신자 실명까지 적혀 전송 상당수는 신규 입당 당원들 "진상 규명" 촉구

즉 광주의 경우 8분의 1만 알려졌고, 이후 지난해 12월 당비 납부 독려 차원에서 미납자를 중심으로 또 다시 전체 당원 명부가 시당 조직국장에 전달됐다. 당원 명부는 US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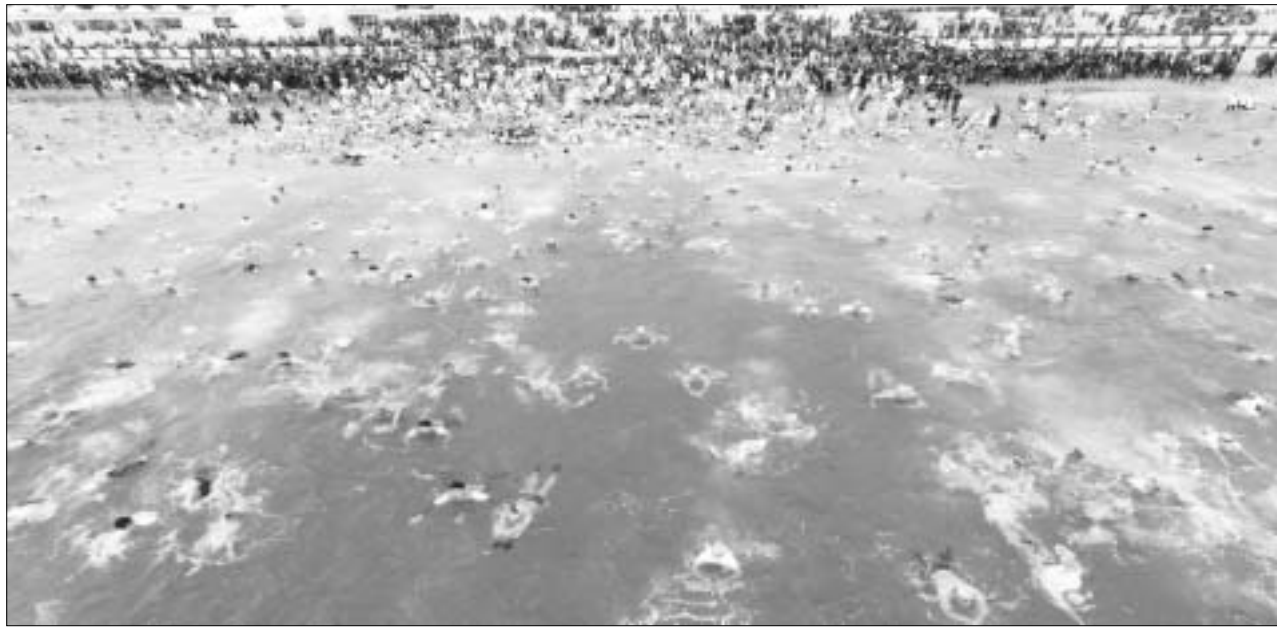
에 담긴 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문자를 받은 일부 당원들은 "개인정보가 새 나간 것 아니냐", "당원 명부가 유출된 것 아

니냐"며 구두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당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일부 당원들의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황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 문제제기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원리원칙에 따라 치우침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은홍 기자



차가운 겨울바다에 '뽕뽕' 7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제31회 해운대 북극곰 수영축제'에 참가한 시민과 관광객 등 '인간 북극곰' 4500여 명이 일제히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들고 있다.

## 담뱃불 부주의 삼남매 숨지게 한 친모 오늘 검찰 송치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삼남매를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종과실치사·중실화 혐의를 적용, 친모를 검찰에 송치한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부주의로 아파트에 불을 내 자녀들을 숨지게 한 혐의(종과실치사·중실화)로 구속된 친모 A(23)씨를 오는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께 두압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11층에서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꺼 불이 나게 해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자녀들이 자고 있는 작은방 입구쪽에 놓인 이불에 담뱃불을 끄는 과정에서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40분께 외출한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 1시50분께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귀가 직후 인병에 걸옷·가방을 놓고, 주방 쪽에서 담배를

피우다 막내가 울자 담뱃불을 이불에 끄고 작은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막내를 달래다가 함께 잠들었고, 작은방 문 앞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고 3차례 진화로 진 남편 B(22)씨와 B씨 친구, 112 상황실에 구조를 요청한 뒤 휴대전화를 두고 작은방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거실에서 작은방에 있는 자녀들을 구하려고 방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번진 불길에 화상을 입고 베란다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12 신고 과정에 "불이 났어요. 집 안에 애들이 있어요. 빨리 와달라"며 집 주소를 말한 뒤 수차례 흐느꼈으며, 베란다 난간에 매달린 채 구조될 당시에도 "우리 애들"이라며 울부짖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감식·부검·현장검증, 탐문·통신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진술·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중실화죄·종과실치사죄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내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구성 요건으

로 규정하고 있다.

즉, A씨가 담뱃불이 꺼졌는지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화재가 커진 상황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작은방 입구 쪽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삼남매에 특별한 의상이 없었다는 화재 감식 1차 결과와 부검의 최종 소견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와 관련된 직·간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 A씨가 최초 진술을 반복한 이후로 현장검증 때까지 일관된 언행을 보인 점, A씨가 귀가 전 첫째의 혈령한 옷을 잡아줬던 옷핀을 구입한 점, '자녀들을 아꼈다'는 주변인 진술 등으로 미뤄 실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종 부검·감식 결과에서 방화와 관련된 정황이 나올 경우 조율 뒤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구청장 출마예정자 명함 수백장 살포 조사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구청장 출마예정자의 명함이 무더기 살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남구 주월동 S아파트와 J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에 구청장 출마예정자 A씨의 명함 수백장이 배포됐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명함 20여 장을 1차적으로 수거하고 아파트단지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 배포자 차량과 신원 파악에 나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명함을 주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금지되며, 예비후보 등록 후에도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만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명함 배포는 불법이지만 의정보고서 형식은 무방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을 받은 뒤 배포한 것이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 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등 6명 검거

트럭 집권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무사증 중국인과 이를 도운 한국인 운전사가 관계당국에 붙잡혔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8일 무사증 이탈 중국인 4명과 한국인 운전기사 김모(37)씨 등 2명 총 6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해경에 신병을 인계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20분께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6부두에서 완도항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증(비자)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제주해경, 제주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당국은 오는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능화된 무사증 이탈자 검거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신병을 인계받은 해경 등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어머니 동거남 둔기로 때리고 도주 20대 검거

어머니 동거남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6일 A(27)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0분께 부산의 한 마트에서 어머니의 동거남인 B(46)씨의 머리를 둔기로 5차례 때려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해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후 자살 의식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자의 위치를 추적해 신원을 파악하던 중 수배 중인 A씨를 확인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카페서 40대女 살해한 男...시민들이 제압

서울 한복판 카페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서울 해화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이모(47)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18분께 종로구 창신동 소재 커피숍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지인 박모(49·여)씨의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페에 있던 시민 2명이 이씨를 제압한 후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이씨를 넘겼다.

이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했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카페에서 박씨를 만나기로 약속한 후 혼자 인근에서 술을 먹었는데, 그 이후는 범행 사실이 나 박씨를 만난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와는 약 3년 전 만난 사이'라는 진술을 했지만 박씨와 어떤 관계였는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

뉴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대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